

■ 화제의 인물 | (주)시루비아 대표 김계준

21세기 친환경농업을 위한 탁월한 선택

시루비아 마리넥스 생산으로 친환경 농업 기대

잔류농약 검출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함유된 채소나 과일을 이제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주)시루비아(대표 김계준)에서 '시루비아 마리넥스(siluvia marinex)'라는 작물병해관리용자재 살균제를 생산해 시판에 들어갔다. 시루비아 마리넥스는 벼도 열병, 딸기잣빛곰팡이병, 시금치 노균병, 배추노균병, 오이흰가루병, 인삼뿌리썩음병 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살균제로 농가에 보급되고 있다. 그러나 가격이 화학제품보다 7배 이상 고가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김계준 대표는 "시루비아 제품군은 친환경 작물 병해 관리용 자재 및 식물활성제인 은 규조라고 일컫는 단세포 수중식물의 유해가 호수나 바다에 가라앉아 형성된 회백색의 퇴적물인 규조토에서 유해미생물인 후미물질을 추출·정제한 분체 식물활성제로서 이 후미물질을 응용한 각종 농업 및 기타 친환경 분야에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국내 유

일의 천연 100% 유기농 제품"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루비아 마리넥스는 100%천연성분으로 인체에 무해하며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심해 바다에 장구한 해양규조토에서 유해미생물성분을 추출·정제한 제품으로 모든 식물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 농업, 화훼, 가정채원 등 여러 가지 방면으로 그 이용도가 다양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종 병균에 강한 작물로 키워주고 착색이 좋고 맛과 향을 높여주며 소득을 높여주며 모든 작물에 살균작용을 하며 미량원소, 광합성균이 동시에 들어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렇게 좋은 제품을 연구하여 세상에 내놓았으나 현실적으로 화학제품에 비해 고가로 농민들이 이용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친환경농업을 위해 투자에 나서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경기북부 경제포럼 '세계경제 및 금융흐름' 포천상공회의소,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마련

포천상공회의소(회장 김인만)는 5월23일 오전 7시20분부터 9시까지 용정결혼회관(군내면 소재)에서 삼성경제연구소 김경원 전무가 연사로 나와 '세계경제 및 금융흐름'이란 주제로 경기북부 경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경기북부 경제포럼은 유관 기관단체장 및 CEO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종사자에 대한 실용경제에 접근하여 우리경제의 이해와 현실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통해 경기북부지역 기업인들이 새로운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제공과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연사로 초빙된 삼성경제연구소 김경원 전무는 "최근의 기업인이 느끼는 경제불황은 연일 최고가 경신하는 고유가와 원자재인 철강 및 곡물가격 등으로 내수경기 부진과 경쟁력 약화로 물가상승 등 큰 비용부담으로 생산흐름의 변화와 순환구조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반대로 환율상승 요인으로 수출은 호전적이었으나 충분하지는 못하고 약간의 전진이 있을 뿐이라"며 "아시아 신흥국가 중에서는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의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비중이 아닐 수 없으며 이는 급성장하고 있는 제3위



포천상공회의소는 5월23일 용정결혼회관(군내면 소재)에서 삼성경제연구소 김경원 전무가 연사로 나와 '세계경제 및 금융흐름'이란 주제로 경기북부 경제포럼을 개최했다.

의 경제대국 중국의 영향이 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했던 CEO들은 "세계경제의 기업정보 공유와 습득으로 지

역경적 활성화와 경영 마인드를 배우는 지리가 되었다"며 큰 호응을 보였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탐방 우리지역 사업소 166 포천요양보호사 교육원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절호의 기회



원장 허세영

최근 들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노령화 시대와 더불어 가정이 핵가족화 되면서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필요한 전문노인간병 인력양성을 위해 요양보호사제도를 신설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배설, 목욕, 조리, 식사, 세탁, 청소, 간호, 요양 상담 등 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전문적인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에서 후진양성에 헌신해 왔던 허 원장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노인들에 대한 간병서비스를 가족만이 아닌 사회와 국가가 함께 책임을 지고 어르신들이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훌륭한 요양보호사를 배출해 요양사 스스로가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노인복지제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기존 종사자(간병인, 생활지도원, 유급 가정봉사원 등)들은 2008년 7월1일 기준, 2년 내에 반드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야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무시험으로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포천요양보호사교육원은 현재 신규자녀 경력자를 대상으로 주, 야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자는 이론 80시간, 실기 80시간, 실습 80시간 등 총 240시간의 교육시간이 필요하다. 모집 인원은 주간 40명, 수강료는 50만원, 교육시간은 09:00~18:00분 까지다. 경력자는 이론 80시간, 실기 40시간, 실습 40시간 등 총 160시간의 교육과정이 필요하며 모집 인원은 야간 40명, 수강료는 40만원, 교육시간은 18:40~22:30분 까지다. 국가 자격증 소지자 중 사회복지사는 이론과 실기 42시간과 실습 8시간 등 총 50시간의 교육

참신, 유능한 요양보호사 배출로 요양보호사 스스로가 일에 대한 자부심과 노인복지제도에 중추적 역할 기대

새로운 국가 자격증 제도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과 노인복지시설의 통합, 개편에 따른 요양보호 전문가가 수급으로 노인 요양시설의 복지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있다. 유능한 요양보호사를 배출해 노인복지제도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난 4월에 개원한 포천요양보호사교육원(포천시 신읍동 23-4(유림화관 1층) 원장:허세영)은 2IC 또는 직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요양보호사를 배출하기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포천요양보호사교육원은 조별별 전담강사(의학박사, 삼육대학교 보건대학원)와 외래강사로 전문 강사 4명, 1급 자격증 소지자나 3년 이상 경력을 갖춘 복지사 3명 등 유능한 강사를 확보해 교육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추산초등학교 교장을 정년으로 41년간 교육계

과정이 필요하며 간호사는 이론과 실기 32시간과 실습 8시간 등 총 40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등은 이론과 실기42시간과 실습 8시간 등 총 50시간의 교육시간이 필요하며 모집 인원은 40명, 수강료는 20만원, 교육시간은 09:00~18:00까지다. 포천요양보호사교육원은 앞으로 노인요양시설(요양병원 포함)(대상자 2.5명당 1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대상자 3명당 1인), 양로시설(대상자 12.5명당 1인) 등에는 오는 7월 1일부터 신규 채용자에 대하여 요양보호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함으로 요양보호사 인원이 부족한 실정인 만큼 하루빨리 자격증을 취득할지 희망하고 있다. 문의 전화 031)532-2588,2577. Fax 031)532-2566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유능한 요양보호사를 배출해 노인복지제도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난 4월에 개원한 포천요양보호사교육원은 2IC 또는 직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요양보호사를 배출하기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행복한 보험이야기 33

신중해야 할 보험 가입

우리나라의 보험시장은 세계 7위일 정도로 큰 규모이다. 10가구 중 9가구가 보험에 가입했고 한 가구당 적지 않은 보험료를 지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에 대한 이해도가 약해서 보험 분쟁이 꽤 많은 편이다. 약관에 대한 해석이 보험사와 고객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복잡하고도 애매 모호한 규정으로 보장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민간의료보험 상품을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유형별로 표준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실제로 민간의료보험은 상품 정보제공 기능이 극히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를 보완하면서 민간의료 보험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은 민간의료보험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경쟁이 지속될수록 국민들이 체감하는 의료서비스의 질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 복지부에 따르면 민간의료보험 상품을 유형별로 표준화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

고 있는 개인들의 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에 공개하며,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환자의 진료료 정당한 비용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당연지정제'를 완화하는 등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에서도, 필요성뿐만 아니라 이제 누구에게나 밀접한 사안이라는 것을 감안할 정도로 보험이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보험은 다른 금융기관의 상품처럼 단순하지 않다.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전액을 계산하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수억원 짜리 상품인 것이기에 가입 시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설계사가 일관치 않아, 친한 친구라는 관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인지성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 고객의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를 위한 판매를 하기 위해 따져보고 가입하자. 보험에 대한 필요성은 이제 누구에게나 보편화되어 있다. 그럼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어떤 차

이가 있기에 나누어져 있는 것일까? 우선 생명보험하면 종신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등이 있고 손해보험하면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상해보험 등이 있다는 것을 많은 이들이 알고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영역이 비슷해지면서 건강보험, 암보험, 어린이보험 등은 양 보험사 모두에게서 취급하고 있다. 그렇지만 각 회사별 각각의 장단점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중 어느 보험사에 가입할까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각 보험사별로 상품을 하나씩 가입해 두면 양쪽 모두에게서 혜택을 받아 무난한 경제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생명보험은 질병이나 사고 시 발생했을 때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액보상을 하며, 손해보험은 실제 치료 받은 금액에 맞게 실손을 보상한다. 물론 손해보험에 특약으로 진단보상을 가입해 놓으면 정액을 더 지급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치료비가 많이 드는 중대한 질병에 대해서

는 생명보험 상품이 유리하며, 작은 질병에 대한 잦은 치료비는 손해보험 상품이 유리하다. 예를 들면, 암이나 뇌출혈과 같은 고액의 병원비를 지출하거나 장기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병이 아니라, 단기간의 입원으로 치료만 하는 병이라면 병원의 전액을 손해보험사에 가입한 의료비보장에서 보상해준다. 생명보험사 상품은 3일 초과 1일당 병원비를 지급하므로 단기일 경우에는 소액의 입원비만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질병이나 사고 시 장기와 단기의 치료를 요할 때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상품을 저렴한 범위 내에서 적절히 가입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정성 있는 보험 가입이라 할 수 있다.

이미정 코인시 포천영업소장 010-3023-0065

사제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산업안전사고 예방

세금이 일반채권보다 항상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스크류 부위 청소 중 협착

거래처가 부도를 맞는 바람에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황당해 씨는 거래처의 부동산이 경매처분되어 경락대금을 배분하는 날 배당을 받기 위해 법원에 갔으나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부동산이 은행에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근저당 설정액에 우선 배당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나, 황당해 씨가 물품을 공급하고 난 후에 거래처에 채납금이나 발생했는데도 세금에 먼저 배당을 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았다. 세금은 일반채권보다 항상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일까? 국세를 체납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국세와 일반채권을 함께 변제하는 경우, 국세는 다른 공과금이나 기타 채권에 앞서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세는 등기나 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 이럴 때 무조건 국세를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면, 담보권을 설정한 일반채권자 등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줄 수도 있다. 그래서 국제기법에서는 국제우선의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선집행 지방세 등의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우선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액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액 중 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 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2) 공익비용의 우선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의하여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가산

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 그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소요된 비용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우선한다. 3)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우선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와 가산금에 우선한다. 다만,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질권·저당권이라 하더라도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와 가산금보다는 우선하지 못한다. 자료제공 : 의정부세무서 재산세과 (031-870-4482~4489)

▶재해발생 개요 2007년 04월 0일 0시경 00철도공사 현장에서 터널 공사 협력업체 소속 배처플랜트 조차원인 피재자가 배처플랜트의 스크리트 수평 전승라인인 스크류 부위 청소작업을 하던 중, 스크류에 오른쪽 발이 걸려 들어 가면서 절단되어 인근병원으로 긴급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재해임. ▶재해발생원인 가. 운전정지 미실시 B/P로 생산된 스크리트를 수평 전승하는 스크류 부위의 청소작업을 할 때에는 협착 및 베임 등의 재해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운전정지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여야 했으나 이를 미준수 나. 방호덮개 상태 미흡 ▶작업여건상 부득이 하여 기계의 가동중에 작업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위험부위인 스크류부에 반드시 방호덮개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여야 하나 방호덮개를 제거



한 상태에서 청소중 재해발생 ▶동중재해 예방대책 가. 운전정지 및 정비작업시 운전정지 준수 •수평 전승해주는 스크류 등 움직이는 기계장치 부위를 청소하거나 정비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사전에 운전정지하고서 작업준수 다. 작동중인 기계의 위험부위에 방호덮개 유지 철저 •작업여건상 부득이 하여 기계의 가동중에 작업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위험부위에 반드시 방호덮개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 실시.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도원(031-826-6091)

국민연금 Q&A 2008년 1월1일 이후 자녀 출산시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 인정(출산 크레딧 제도)

본인은 '08.1.1.이후에 2명의 자녀를 둘 예정이며, 현재 소규모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령연금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7년입니다. 가입기간이 7년이면 이득이 있습니까? ▶ 종전에는 자녀의 수와 관계없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만으로 수급요건 충족여부 결정하였으나, 금번 개정법은 고출산 및 여성가장자의 연금수령 기회 증대로 연금사각지대를 축소하고자 자녀 2인 이상인 경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최소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인정합니다 ('08.1.1.이후 둘째 자녀 출산 시부터 적용)

Table with 5 columns: 자녀수, 2자녀, 3자녀, 4자녀, 5자녀이상. Row 1: 출산크레딧 인정기간, 12개월, 30개월, 48개월, 50개월. *인정기간 : 자녀가 2인인 경우 12개월,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자녀 1인 마다 18월 추가(최장 50개월까지 인정) 이러한 혜택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령연금 수급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취득신고를 하시어 가입기간을 늘려 나가시기 바랍니다.